
제18대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소감 및 비전

<< 순 서 >>

이윤성 국회부의장 환경노동위원회
강운태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고승덕 의원 정무위원회
김성식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김성순 의원 국토해양위원회
김희철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문학진 의원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민식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심재철 의원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유정복 의원 국토해양위원회
장제원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주승용 의원 지식경제위원회
홍정욱 의원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황영철 의원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8년도 수상자

'08국감모범의원상

환경노동위원회 이윤성 국회 부의장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국회부의장이 되자고 각오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순(耳順)을 넘긴 4선 국회의원이, 그것도 국회부의장의 직책에서 받는 상이고, 12년간의 의정생활중 거의 매년 수상해왔음에도, 국감NGO국감모니터상을 수상하는 소감은 한결같이 “기쁨과 영광”,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 그 자체입니다.

아마도 나라의 주인인 국민 속에서 자발적으로 결성된 시민단체들이 “충실한 국정감사 유도”라는 순수한 목표 아래, 3주 동안 국정감사 현장을 매섭게 모니터링 하여 내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이기에 더욱 각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4년 전 일간지기사가 있습니다. 16대 국회가 마무리되어가던 2004년 3월 1일 모일간지는 “[16대 국회 의정평가] 다선일수록 ‘의사당 밖 활동’ ”이라는 제하에 16대 국회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100점 만점 기준으로 16대 국회의원들의 평균득점이 초선의원 65.63, 재선의원 63.77, 3선의원 55.4로서 다선일수록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기사로부터 받았던 충격이, 이번에 국회부의장으로서 첫 국정감사에 임하는 저로 하여금 ‘국회부의장 이전에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임무인 국정심의회 입법에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에서도 모범을 보이는 국회부의장이 되자’ 는 각오를 다지게 하였습니다.

아무튼 나름대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최선을 다했다지만, 저 보다 더 열심히 하시고 더 큰 성과를 내신 동료의원님들이 많음에도 제게 수상의 영광을 주신 깊은 뜻은, ‘훈장’ 이 아니라 국민민복을 위해 더욱 진력하라는 ‘독려’ 에 있음을 알고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헌신적인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모쪼록 앞으로도 변함없이 “충실한 국정감사 유도”,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민주시민의 정치학습 기회 제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애국의 길을 올곧게 걸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08년 12월 3일

국회부의장 李 允 盛

'08국감우수의원상

기획재정위원회 강운태 의원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귀한 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수상이 보다 더 열심히 일하라는 270여 시민·사회단체의 격려와 바램이라 여기고 의정 활동에 대한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져봅니다.

무엇보다도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정감사의 진정한 의미와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으로 모니터에 임해주신 1,000여명의 NGO모니터단과 평가위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지난 10여 년간 변치 않은 모습으로 정쟁을 떠나 정책과 대안을 모색하는 국회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활동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여러분의 이러한 노력은 결국 대한민국 국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나아가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정감사는 국회의 핵심기능의 하나로서 국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하고 정책적인 대안제시를 통해 국정의 효율적 운영을 이끌어내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국감현장에서는 과거의 관행이었던 폭로공방과 인신공격성 정치논리가 아직도 잔재해있고 일정에 비해 과다한 대상기관과 자료제출 기피로 일관하는 행정부의 불성실한 태도, 부족한 질의시간, 증인채택 공방, 사후검증 미비 등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시행하는 것인만큼 이번 국정감사를 진행하는동안 제기된 문제점들은 18대 국회 회기중 법적·제도적 보완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권위와 신뢰를 받는 국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끝으로 국정감사 기간동안 일일이 상임위 전체를 모니터하고, 지방일정에도 함께 해준 자원봉사 모니터 요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08년 12월 3일

국회부의장 姜 雲 太

'08국감우수의원상

정무위원회 고승덕 의원



2008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주신 NGO 모니터단 여러분, 또한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처음으로 참여한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본 의원은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 언론을 통해 여당 의원이지만 야당 의원처럼 국정감사에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잘못을 꼬집는 것뿐만 아니라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어 국정감사를 추진하겠다는 포부 또한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직접 경제 현장을 찾아 발로 뛰면서 국민의 고충을 듣고, 특히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국정감사 직전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국민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융위원회라고도 불리는 정무위원회는 정쟁과 모함으로 얼룩진 국정감사가 아닌, 실질적으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급히 그 대안까지 제시하는 국정감사를 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금융 감독 기관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국민이 주신 이러한 막중한 임무에 따라 본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산업은행의 방만한 경영 실태를 지적하고 바람직한 민영화 방안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수많은 중소기업을 올린 키코를 비롯한 금융파생상품들의 허점을 꼬집어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책임을 집중 추궁하였습니다. 국민들의 고충을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할 국가보훈처, 소비자원 등의 방한만 태도도 본 의원의 엄정한 질책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국정감사 기간 동안 열 네 건의 보도자료, 세 부의 자료집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널리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언론 또한 수십차례 본 의원의 국정감사 활동을 보도하였습니다.

첫 국정감사를 마치고 보니 우리나라 행정부는 다소 부족한 점도 없지 않으나, 기본적으로는 참으로 부지런하고 전문성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 또한 안타까운 점이었습니다. 이에 국정감사 이후 본 의원은 입법을 통해 우리 국민이 마음껏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여 최대한 국민의 뜻을 따르고자 노력한다면 다함께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 12월 3일

국회위원 高 承 德

'08국감우수의원상

기획재정위원회 김성식 의원



조선 국회의원으로서는 국회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국민의 소리에 더욱 귀기울이고 의정활동을 올바르게 할 것을 스스로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올해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로 국내 경제가 큰 충격을 받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과 중산·서민층의 삶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상황 속에서 재정·경제정책을 소관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첫 국정감사에 임해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과 보완책을 제기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하였습니다.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경제정책, 세제정책, 재정정책, 금융정책 등에 대한 기본 정책방향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적절한 유동성 공급을 포함한 긴급금융대책과 부실을 제거하기 위한 구조조정을 함께 하면서, 중소기업과 어려운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현재의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금융시스템 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초선으로서 첫 국정감사를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우리 경제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여러분들께서 인정하고 격려해주셔서 큰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정감사에서 지적사항과 정책제언에 대해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경제가 건전한 발전을 해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2월 3일

국회의원 金 成 植

'08국감우수의원상

국토해양위원회 김성순 의원



국민들은 국회가 일 안한다고 꾸중이다. 무노동 무임금원칙 적용해 세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일리 있는 말이다.

그러나 세비 안 받으면 국회의원이 일 안해도 된다는 건지.

그런 차원을 떠나서 국회의원에게겐 막중한 일이 있다. 이걸 조건 없이 해야한다. 그걸 하겠다고 공약하고 국회의원 됐다.

국회의원이 일 안해도 되는 구실은 없다. 더구나 국내외적으로 무척 어렵다. 특히 경제가 아주 심상치 않다.

국정감사는 정부가 일 잘하라고 감시하고 지적하는 국회의 아주 기본적인 업무다. 당연히 의원 각자가 자기분야에서 최선을 다 해야 한다. 이것 했다고 상을 받으니 좀 쑥스러운 생각이 든다. 나 보다 오히려 일일이 참석하고 귀 기울여 체크하고 평가한 모니터 요원들의 수고가 더 많았다는 생각이 든다.

개인이건 조직이건 감시를 받지 않으면 흐트러지기 쉽다. 이런 평가를 통해 시민은 국회의원을 감시하고 국회의원은 정부를 감시하여 그 효과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좋은 국정이 됐으면 좋겠다.

시민단체의 역할이 큰 사회가 민주사회다.

2008년 12월 3일

국회의원 金 聖 順

'08국감우수의원상

행정안전위원회 김희철 의원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이자 개인적으로도 처음인 국정감사를 끝내니 아쉬운 마음이 큼니다. 무엇보다 13일 동안 22곳의 기관을 감사하려니, 좀더 내실 있는 감사가 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그래도 참 열심히 했기에 후회는 없습니다.

국회의원 당선되고 서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등원하자마자 대학등록금 인상 상한제, 대규모점포 개설영향 평가제도 등 고물가와 경치침체로 생활고가 깊어가는 서민을 위한 민생법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국회 민생특위의 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국정감사도 서민을 위한 국감을 모토로 삼았고, 구체적으로는 첫째,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것인지 점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둘째,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승부하는 품격 있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셋째, 지난 정부의 공과를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공개된 바 없던 특별교부금 배정내역을 추적하여, 특별교부금이 역대 정권실세들의 쌈짓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어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한편 정부로부터 제도개선 약속을 받아낸 것이 보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0년 전통의 권위와 공신력을 자랑하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국정감사우수위원으로 선정되니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번 첫 번째 국감에서 저 스스로도 많은 것을 배웠는데 상까지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08년 12월 3일

국회의원 金熙喆

'08국감우수의원상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문학진 의원



27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10년 전통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미약한 활동에 감당할 수 없는 큰 상을 받아 기쁨과 더불어 이번 국정감사가 국정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와 제도개선을 통한 예산낭비 방지, 국민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마련 등 본연의 역할에 과연 충실하였는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정감사를 더욱 철저히 하라는 따끔한 채찍으로 여기고 앞으로 국정감사가 민생국감, 정책국감이 될 수 있도록 입법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분발 또 분발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정감사 모니터를 위해 헌신해 오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2월 3일

국회의원 文 學 振

'08국감우수의원상

법제사법위원회 박민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민식(부산 북·강서갑,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지난 10년간 입법기관인 국회의 올바른 국정감사 활동 모니터를 위해 열심히 준비해 주신 법률소비자 연맹을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와 늦은 시간까지 각 상임위 위원들과 함께 현장에서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모니터를 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능력이 뛰어난 여러 선배, 동료의원들이 이번 국정감사 때 최선을 다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주신 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부분들이 부족했던 국정감사였다”, 제 첫 번째 국정감사 자평입니다. 피감기관의 잘못된 점을 논리적으로 파고들어 밝혀내고 대안을 모색할 것을 엄하게 지적하는 선배의원들의 지적이 칼과 같았다면, 투박스러운 제 모습은 날을 세우기 위해 아직 대장장이의 손길이 더 필요한 칼과도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많은 의원들 가운데, 저를 우수국감의원으로 선정해주신 것은 스스로 더욱 갈고 닦아 의회민주주의와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더욱 열심히 하라고 주시는 기회의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공식적인 국정감사는 끝이 났지만, 많은 것이 남았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많은 불합리한 것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만 해놓고, 행정부더러 알아서 지키라고 수수방관하는 것 또한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불합리한 것은 지적하며 바꾸려는 노력이 국정감사 기간에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賞)이 아닌 국민의 마음을 얻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2008년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겨주신 국정감사 NGO단 상임공동단장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모니터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뜻 그대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2008년 12월 3일

국회의원 박민식

'08국감우수의원상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



2008년 제18대 국회가 시작되고 첫 번째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면을 빌어 저를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7번째 선정해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김대인 단장님을 비롯한 단체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여러 가지로 저에게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16대 국회 이후 4년만에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돌아와 감회가 새롭기도 했고 지난 8년간 야당 국회의원으로 국정감사에 임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여당 의원으로 국정감사를 치르게 되어 조금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정감사의 기본취지인 정부의 정책집행을 감시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한다는 원칙을 잊지 않고 국정감사에 임하다보니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이 상의 의미를 누구보다 무겁게 받아들이며 18대에도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라는 뜻으로 알고 남은 4년간 일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수상을 계기로 다시 한번 초선 의원의 열정적인 마음을 되새기며 언제나 한결같은 의정활동으로 국민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회의원으로 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2008년 풍성한 결실로 좋은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08년 12월 3일

국회의원 沈 在 哲

'08국감우수의원상

국토해양위원회 유정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정복입니다.

우선 영예로운 “2008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하여 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에게나 상을 받는다는 것은 큰 기쁨이겠으나, 지난 17대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면서 의정활동에 대한 의욕과 바람이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번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마친 후 느낀 소회 역시 “조금만 더 분발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었습니다.

통상 국감은 준비기간까지 2~3개월여를 보좌직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여 아이টে임을 만들고, 현안 분석으로 밤을 새우는 고된 작업이건만 이에 따른 보람과 성취감은 말할 수 없이 큼니다.

고마운 것은, 이러한 과정에 동참하여 주시는 수많은 모니터위원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감사 등 현장모니터링을 포함하여 온/오프라인에서 국점감사의 정쟁과 파행을 예방하고, 국회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정상화를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많은 모니터 위원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제 의정활동의 모토는 “공부하는 정치인, 일하는 국회의원. 변함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수상을 바라다거나, 언론에 몇 줄 올리거나 하기보다 “절차탁마(切磋琢磨)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면밀히 판단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 행사준비에 노고를 다해오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김대인 상임단장을 비롯 1천여 모니터위원과 평가위원 등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 큰 활동과 역할로 정치발전 및 국가발전에 일익을 다해주길 기원합니다.

2008년 12월 3일

국회의원 劉 正 福

'08국감우수의원상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 의원



제법 찬바람이 불니다. 어느덧 12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한달은 참 길게 느껴졌는데, 11월은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저에게 10월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던 이유는 아마 그 어느 때보다 밀도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초선 국회의원으로서는 저는 첫 번째 국정감사를 앞두고 잘해야지하는 의욕도 컸고, 그만큼 부담감도 많이 느꼈습니다. 18대 총선에서 저를 믿고 지지해준 사상구 주민들과, 도와준 선배·후배·친구님들, 함께 고생한 직원들에게 이왕이면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20여일동안 시험을 앞둔 고3 수험생의 심정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일했던 것 같습니다. 만족스럽고 알찬 질의를 준비하기 위해 자료를 읽고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지내다보니 어느덧 국감이 끝났더군요. 저는 소신껏 열심히 했다고만 생각했지만, 이렇게 좋은 상을 제게 주실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참 감격했습니다.

무엇보다 국내 유수의 시민단체들이 모여 만든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주시는 상이어서 기쁨이 더욱 큼니다.

더욱 열정적이고 부지런한 자세로 국민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정치를 하라는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잘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제 가슴에 꼭 새기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2월 3일

국회의원 張 濟 元

'08국감우수의원상

지식경제위원회 주승용 의원



2008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해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뜻 깊은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임위가 바뀌고 짧은 기간 안에 국감을 준비하느라 어려움이 없지 않았으나 최대한의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로 노력을 했는데 이점을 높이 사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정감사의 주목적이 피감기관의 잘못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이번 국감은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식경제부 감사에서 공기업 임원들이 항공기의 퍼스트클래스를 이용하면서 호화판 해외출장을 하는 문제점을 집중 추궁하여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에 지식경제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즉시 개선조치를 취했습니다. 실제로 10월 29일 한전 등 69개 산하기관은 감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공기업 사장과 감사는 국외출장 때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하고, 출장준비금은 폐지’ 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이 외에도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질의내용을 설명함으로써 피감 기관장 및 의원들의 이해를 도왔던 점도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10권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 연구 성과물을 만들어냈던 점도 의미가 깊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노력했는데, 이점에 모니터단 여러분께서 후한 점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역으로, 국감NGO모니터단의 날카로운 시선이 있었기에 오늘의 영광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감NGO모니터단의 활동 이후 질의시간 동안 의원들의 착석률이 높아지고 의원들의 질의내용이 충실해지는 등 국정감사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국감NGO모니터단의 활동을 통해 국정감사의 내용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모니터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계속 정진하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2월 3일

국회의원 朱 昇 鎔

'08국감우수의원상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홍정욱 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감 우수국회의원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보다 국정감사나 입법과 같은 의정활동이라 보고 있기에 의정활동의 성과를 잣대로 부여하는 이번 상이 주는 의미는 남다르다 하겠습니다.

저는 첫 국감에 임하면서 세 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되뇌었습니다. 첫째, 초당적으로 합리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둘째, 선정적인 폭로가 아닌 사실에 근거한 정책 제안에 초점을 맞추고, 셋째, 비판과 견제의 품위를 지키자는 원칙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만족하기엔 여전히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NGO모니터단에서 이처럼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 준 것은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터질 듯한 답답함과 타는 목마름을 느껴야 했던 반년이었습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려야 하는 정치가 오히려 국민의 가슴에 상처를 안기는 것 같아 깊은 회의도 느꼈습니다. 싸움질 않고 일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국회에 입성했는데, 구조적으로 정쟁과 당파로부터 벗어나기 힘든 현실이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척박한 정치환경 속에서도 사람에 대한 애정과 의정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는 동료의원님들을 지켜보며 힘을 얻습니다. 아울러 품위와 온정이 담긴 정치로 후배들의 귀감이 되는 선배님들을 보며 희망을 얻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배려 속에서 미래로 전진할 동력을 발견합니다.

여의도 정치를 둘러싼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회가 스스로에 대한 감시에는 소홀했던 탓입니다. 그나마 NGO모니터단을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의 건설적인 질책으로 국회의 잘못된 관행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아무쪼록 더욱 성실한 의정활동에 매진하라는 채찍질이자 의회정치의 고질적 병폐 해소에 노력하라는 엄중한 요구로 알고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2월 3일

국회의원 洪 政 旭

'08국감우수의원상

농림수산물위원회 황영철 의원



국감 NGO모니터단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니,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언 땅에 비닐하우스를 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순간들이 스쳐지나갑니다.

기초의원, 두 번의 광역의원을 거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닫고 두 차례의 국회의원 낙선을 통해 민의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어렵게 걸어온 길이지만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기에 이 모든 과정이 소중한 배움의 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처음 국정감사를 치르면서 국민의 목소리 특히, 서민과 농민의 아픔을 국정감사장에서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대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했는지 깊이 되돌아보는 시점에 부족한 제가 국정감사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은 크나큰 감동과 감사의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 늦은 밤까지 함께 고생해 준 의원회관 409호실의 보좌직원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이 감사하며, 저를 믿고 국회에서의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작은 농촌마을 홍천·횡성 지역주민들께 이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고통 받고 계시는 서민과 농민의 곤궁한 생활을 두루 살필 줄 아는 이 시대가 원하는 훌륭한 국회의원 상(像),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해 더욱 깊이 성찰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08년 12월 3일

국회의원 **黃 永 哲**